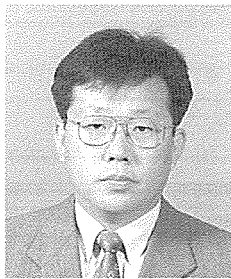


# 따뜻한 생명력이 있는 과학기술

개발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제기해 주던 교수는 무슨 까닭인지 연락을 끊고 말았다.  
 돈이 과학기술의 절대가치로 등장한 지금 과학기술을  
 가치중립이라 논하기는 매우 민망하다.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위해서는 따뜻한 체온과 윤리가 있는  
 과학기술이 시급하다.



朴炳相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이** 천광역시 웅진군 덕적면 서포3리는, 당시 5가구 9명이 살던 범죄없는 굴업도의 현 주소다. 주민을 소집한 핵폐기장 건설기획단은 지역발전기금으로 5백억원을 약속했다. 5백억원? 가구당 1백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왔다는 지위 높은 과학자들이 시골 구석에까지 찾아와 거짓말 할 리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절대 안전하다”, “발전된 굴업도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죄 없는 마을답게 전원이 도장을 찍었다.

발표된 바와 달리 단일 옹회암이 아니고 단층과 절리가 그득하다, 시추는 왜 안하는가? 핵폐기장으로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며 굴업도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곤혹스러운 과학기술처 장관은 당시 유명한 말을 실토했다. “과학기술은 정치의 시녀”라고. 핵폐기장 후보로 굴업도를 확정 한 직후, 그 장관은 전임 과학기술처 장관과 마찬가지로 단명하고 말았다.

## 오염 원인엔 신경안써

대학원 시절 유사종 간의 진화관계를 유전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에 앞서, 채집을 위해 전국 수십개의 하천을 뒤질 때의 이야기다. 채집에 골몰했던 우리는 오염된 하천에서 개체수 채우기에 어려움을 불평하면서도 하천이 오염된 원인에 거의 신경쓰지 않았다. 필요한 개체

수 확보를 위해 남획을 불사하면서도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채집된 개체들을 손상되지 않게 실험실로 가져가 진화관계를 밝히고, 학술발표를 거쳐 논문을 쓰는 기초과학도의 의연한 자세를 자랑했던 우리들은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라고 굳게 믿었다.

생태환경에 뒤늦게 눈을 뜨고서 들렀던 하천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아, 그때의 참담함이란... 생명이 살던 하천이 아니었다. 차라리 하수천이었다. 쌓였던 쓰레기는 사라졌지만, 구불구불한 물길을 일자로 정렬시키고 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고른 하천의 양편에 방수포와 시멘트 호안 블록을 절도있게 쌓았으나, 하천은 생명을 잃고 말았다. 상류의 하천 부지에 조성된 농공단지, 축산단지에서 유입된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흐르는 하수천이 되고 만 것이다. 바닥에서 퍼 올린 모래와 직강으로 메운 하천부지를 팔아 챙긴 수입을 정화 처리에 전액 쏟아부어도 한번 파괴된 하천은 이전의 생태환경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강종합개발로 한강이 맑아졌다’, ‘새가 늘어났다’, ‘물고기가 많아졌다’고 당시의 군사 정권을 만족시킨 학자들은 지금도 과학기술을 가치중립이라 믿을까?

최첨단 신도시를 제삼 제사 약속하는 인천의 송도 신도시는 인천 시민의 정서가 담긴 생명의 깃발을 매립하고 조성된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주산 문학산의 한 자락을 폭발시켜 하루 수백회, 주산의 살점을 피부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홍내낸 미디어밸리를 만든다는데, 과학기술의 총아 미디어밸리와 인텔리전트빌딩, 컨벤션센터 등으로 분장될 최첨단 신도시의 지척에는 LNG와 LPG 인수기지가 자리잡고, 예정대로라면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분노처리장이 나란히 늘어설 것이라 한다. 잘 어울리는 비빔밥일까?

### 학문 깊이보다 연구비 신경

바로 그 LPG 기지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개발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제기해 주던 교수는 무슨 까닭인지 연락을 끊고 말았다. 사업자의 어설픈 반론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던 그는 나중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해 왔다.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가슴 벅차게 만나곤 했던 그 교수는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이 아니라고 확신했을 모종의 조치를 당했다는 후문이었다.

학문의 전당, 상아탑으로 지칭되던 대학이 벤처기업의 산실로 화려하게 변신한 오늘, 존경받는 교수는 학문이나 철학의 깊이보다 연구비 수령액의 높낮이에 좌우된다. 돈이 과학기술자의 절대 가치로 등장한 지금, 과학기술을 가치중립이라 논하기란 대단히 민망하다. 돈을 주는 중앙 정부와 대기업의 의도에 충실하는 과학기술은 잃든 좋든 권력의 중앙집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위험한 사회는 그렇게 증폭되었다.

과학기술이 개입하는 중앙 권력은 누구일까? 핵발전과 핵폐기와 같은

핵관련 산업, LNG와 LPG와 같은 대형 가스산업이 그다. 생태수탈형 다목적댐도 빼놓을 수 없다. 독점 지위를 누리는 중앙집중 산업이 대개 그 예에 속한다. 편의로 치장되었지만 정보를 배타적으로 독점한 세력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구성되면서 잠재 위험성은 편의를 넘어섰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자동차, 화학비료 등등. 거부할 수 없는 편의의 수용자는 위험성 역시 거부할 수 없게 구속된 것이다.

중앙집중된 편의는 돈없는 수용자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지불 능력 부족한 수용자에게 위화감을 선사한다. 주어지는 편의에 익숙한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남의 사정에 관심이 무디어진다. 에어컨 가동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웃고, 타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에 무덤덤해진다.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아파트는 위아래 집을 멀게 하고 컴퓨터 게임에 정신없는 아이는 퇴근한 아빠에게 인사하기 귀찮다. 주어지는 첨단화의 부산물이다.

눈부신 과학기술은 지구 저편의 전쟁도 생중계 해주지만 편집자의 시각은 희생자의 아픔을 전과 목록에서 뺀다.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아, 자기만의 가상공간을 확장해주는 사이버 산업은 사이버 애인과 키스와 섹스도 판매한다지만 피부에 닿는 체온이 없다. 말초적 체험 뒤로 허무함이 남는 가상세계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상공간이 아니다. 피부에 닿는 따뜻한 체온이다. 최첨단에서 소외된 우리 어른들

이 갈 곳 몰라 하는 이 시간에도 현기증 나게 가속되는 과학기술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안내할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우리 아이들이 곧 어른이 되면, 늙어 버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삶의 오랜 터전이었던 청정 시화만이 막히자 포도 농사로 시름을 달래 왔던 화성군 송산면 마산포 주민들은 과학자를 불신하게 되었다. 제방에 갇힌 바닷물이 햇볕에 증발하자 죽은 갯벌 가득 소금이 드러났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른 소금이 마을과 과수원을 덮치자 포도나무가 죽어 갔다. 대책을 호소한 그들 앞에 이것저것 묻고 사라진 과학자는 “소금으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아리송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양심 있는 과학자의 양심 있는 조사로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는 그들의 호소가 각혈로 바뀌었지만 전문가라는 과학자들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 소외부른 최첨단의 허상

바람직한 인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소외를 강제하는 최첨단일까?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공동체는 중앙집중 사회가 아니다. 자급자족의 생태사회요, 체온을 나누는 대면사회(對面社會)다. 그 사회를 위해 과학기술로 얽힌 제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야겠지만 체온없는 과학기술로는 불가능 할 것이다. 돈이 아닌 윤리가 과학기술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일 것이다. 열쇠는 시민참여에 있다. ㉓